

이슈페이퍼

---

#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이재열

이슈페이퍼

---

#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이재열



#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이재열<sup>1)</sup>

## 〈목 차〉

I. 연구의 배경 .....	2
II. 자료 분석 결과 .....	7
III. 정책 제언 .....	29
IV. 기대 효과 .....	35
참고문헌 .....	36
Abstract .....	38
[부록] .....	39

최근 우리 사회의 진로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에 대한 요구와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진로교육 관련 연구와 정책 시행이 학령기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진행됨에 따라,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에 대한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다소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근거하여 이 연구는 대학생 및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규모 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진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정책과 프로그램의 수립 및 적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 특성은 하위 요인별로 높고 낮음이 뚜렷하였고,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간 상관관계가 하위 요인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고려할 때, 진로교육 정책을 수립하기에 앞서 대상별 진로 특성을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여 다양화 및 차별화된 진로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대규모의 심리검사를 더욱 확충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개발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진로 특성, 진로개발, 대학생, 성인, 진로교육, 진로지원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E-mail: jaylee@krivet.re.kr)

## I. 연구의 배경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 환경과 산업 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최근 우리 사회의 진로경로는 다양화 및 다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의 소질이나 적성에 부합하는 직업선택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개인의 취업준비나 진로개발의 어려움을 증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다양해진 직업세계를 포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의 필요성도 증대시킨다.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빠르게 개발·적용되고 진로경로가 세분화되거나 복잡해지면서, 진로개발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생애진로의 관점에서 학령기 청소년뿐만 아니라, 대학생 및 청년 이후 일반 성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지원과 진로개발역량 강화의 필요성과 요구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개인들은 저마다 다양한 진로경로를 보이며 다수의 직업에 종사하거나 유연하게 직업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진로개발의 복잡성이 커져가는 상황을 고려할 때, 대학생 및 성인들이 취업이나 직업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신의 진로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개발역량을 높이도록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필요하다(정윤경, 2019).

하지만 지금까지의 진로 특성 및 진로개발과 관련된 연구는 학령기 청소년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들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성숙, 진로 적응성, 진로준비행동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다(김경옥, 2009; 김지영·이민영, 2018; 서희정·윤명희, 2014; 양명희 외, 2010; 이종원·최은수, 2014; 정영해 외, 2012). 다만 연구 대상의 수가 적어 일반화가 어렵거나 표준화된 검사 결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연구의 과정과 결과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성인의 진로 특성에 대한 연구는 대학생 대상 연구에 비해서도 양적으로 상당히 부족하다. 성인 대상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경우에도 특정 집단이나 직업군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서 성인들의 다양한 진로 특성을 포괄하기 어렵고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여 적용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요컨대, 지금까지의 성인 대상 진로지원은 사실상 취업준비 및 취업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성인 진로 특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수집된 자료에 근거하여 진로 특성을 보다 다각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연구의 수행이 필요하다<sup>2)</sup>. 즉,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기에 적합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수집된 대규모 또는 양질의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과 성인의 취업 및 직업준비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진로설계와 진로개발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또한 실효성이 높은 진로교육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학생과 성인의 일반적인 진로 특성을 규명하여 기본적인 추진 방향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그들의 실제적인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양상을 밝히기 위해, 다년간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표준화된 검사의 결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2. 주요 연구 내용

이 연구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양상을 파악하고, 해당 특성들의 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학생과 성인들의 진로 특성에 대한 기초 정보를 획득하고 향후 확대 시행될 수 있는 대학생 및 성인 대상의 진로교육 및 진로 지원 정책이나 사업, 연구와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커리어넷에서 최근 3년간(2016~2018) 실시된 성인용 진로 심리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양상을 확인하였다.

둘째, 대학생 및 성인의 배경에 따른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차이를 분석하여, 대학생과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방향을 탐색하였다.

셋째,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관계를 분석하여,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 특성을 고려한 진로개발 지원 및 강화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2)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지원 정책은 구직자 취업지원, 경력단절여성 대상 종합 지원, 중장년 대상 전직지원 등 일자리와 관련한 취업역량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진로이해 및 진로설계·진로개발·진로탄력성 강화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와 정책이 필요하다(정운경, 2019).

### 3.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양상과 관계를 파악하고, 진로교육과 진로지원 정책이나 사업,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 가. 문헌 분석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심리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개념과 변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문헌 분석을 통해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 특성을 이해하고, 진로교육과 진로지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문헌 분석에 따른 선행연구 요약 정리 내용은 [부록 1] 참조).

#### 나. 자료 분석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표준화 진로 심리검사 결과 자료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커리어넷의 성인용 온라인 진로 심리검사 서비스 중 직업가치관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진로개발준비도검사 등 3종의 심리검사를 실시한 결과이며, 최근 3년간(2016~2018) 실시하여 축적된 검사 결과 중 3종의 검사에 모두 참여한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범위를 한정하여 자료를 추출하였다.

각 검사를 구성하고 있는 문항 수와 하위 요인 등을 종합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각 검사의 하위 요인별 정의는 [부록 2] 참조).

〈표 1〉 검사별 문항 및 요인 구성

검사명	문항 수	하위 요인
직업가치관검사	28문항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
주요능력효능감검사	49문항	신체운동능력, 공간지각능력, 음악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능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연친화능력
진로개발준비도검사	35문항	자기이해, 전공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자신감, 관계활용효능감, 구직준비도

자료 분석은 SPSS 24.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실시하였다.

#### 다. 전문가협의회 개최

자료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양상을 해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였다. 검토 및 자문에 참여한 전문가는 대학생 및 성인 대상 교육과 진로지도를 실행하거나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교수 및 박사급 연구자로서, 대학 교수 7명과 관련 연구기관의 연구원 3명 등 10명으로 구성되었다. 전문가 검토 및 자문을 통해 수렴된 의견은 문헌 분석 및 자료 분석 결과와 종합하여, 정책적 시사점과 제언을 도출하는 데 반영되었다.

## 4.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관계 분석을 위해 진로 심리 검사 3종을 실시한 대학생과 성인의 검사 결과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히 고자 하는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에 대한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직업가치관

직업가치관은 개인이 직업생활을 통해 어떤 가치를 추구하거나 중요시하는가에 대한 관점을 의미한다(임언 외, 2012). 개인이 직업을 통하여 실현하려는 욕구나 목표를 직업가치로 정의할 수 있는데(임언 외, 2001), 이 연구에서는 능력 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



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등 8개의 가치를 직업가치관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고, 개인이 상대적으로 어떤 가치를 더 중시하는가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달라지는 것으로 정의하였다<sup>3)</sup>.

#### 나. 주요능력효능감

주요능력효능감은 직업 분야에서 요구되는 주요 능력에 대한 개인의 인식 및 자신감의 수준을 의미한다(임언 외, 2004). 개인이 각 능력과 관련된 활동들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신체운동능력, 공간지각능력, 음악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수리논리능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연친화능력 등 9개의 능력을 주요능력효능감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고, 각각의 능력에 대한 인식 수준을 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sup>4)</sup>.

#### 다. 진로개발

진로개발은 개인이 일과 관련하여 직업과 진로를 탐색하고 준비하며 적응하는 과정을 의미한다(임언 외, 2004). 진로개발을 위해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해 이해하고 진로결정 및 각종 의사결정과 관련된 기술과 태도를 활용해야 한다. 진로개발준비도검사는 진로개발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와 기술 활용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자기이해, 전공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자신감, 관계활용효능감, 구직준비도 등 6개의 요소들을 진로개발의 주요 구성요인으로 보고, 각각의 요인에 대한 판단 결과를 진로개발의 수준으로 정의하였다<sup>5)</sup>.

- 
- 3) 직업가치관검사는 두 개의 가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개인이 더욱 중요시하는 가치가 다른 가치에 비해 높은 점수로 나타나게 된다. 개인별 검사 결과에서 각각의 가치 점수는 0점~7점 사이에 분포하며, 7점에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더 중요시하는 가치로 볼 수 있다.(커리어넷 심리검사 서비스 홈페이지 참조)
  - 4) 주요능력효능감검사 결과는 각 능력별로 표준화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산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다.
  - 5) 진로개발준비도검사 결과는 각 요인별로 표준화점수(평균 50, 표준편차 10)로 산출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요인에 대한 진로개발이 잘 되어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II. 자료 분석 결과

이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커리어넷에서 제공하는 진로 심리검사 3종(직업가치관검사, 주요능력효능감검사, 진로개발준비도검사)을 모두 실시한 대학생 및 성인의 검사 자료를 수집하여, 진로 특성 및 진로개발의 양상과 관계를 밝히고자 분석하였다. 분석에 투입한 자료의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배경 변인 분석 결과

구분		대학생	성인
성별	남자	5,465 (49.1%)	2,441 (42.0%)
	여자	5,664 (50.9%)	3,364 (58.0%)
연령대	30대 이하	-	3,845 (66.2%)
	40대	-	1,183 (20.4%)
	50대	-	563 (9.7%)
	60대 이상	-	214 (3.7%)
계		11,129 (100.0%)	5,805 (100.0%)

대학생의 진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총 11,129명의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고, 남자가 5,456명(49.1%), 여자가 5,664명(50.9%)이었다. 한편, 성인은 총 5,805명의 검사 결과를 활용하였으며 남자가 2,441명(42.0%), 여자가 3,364명(58.0%)이었다. 성인의 경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3,845명(66.2%), 40대가 1,183명(20.4%), 50대가 563명(9.7%), 60대 이상이 214명(3.7%)으로 나타났다.

### 1. 직업가치관 분석 결과

#### 가. 대학생 및 성인의 직업가치관 양상 분석

직업가치관검사 결과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기술통계 분석 결과(직업가치관)

(대학생=11,129, 성인=5,805)

하위 요인	대학생		성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능력발휘	4.29	1.521	4.20	1.520
자율성	3.63	1.922	3.84	1.974
보수	4.29	2.100	4.18	2.075
안정성	3.68	2.195	3.41	2.232
사회적 인정	3.71	1.928	3.64	1.904
사회봉사	1.97	2.069	2.00	2.053
자기개발	4.21	1.860	4.50	1.797
창의성	2.22	2.005	2.24	1.979

직업가치관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능력발휘(4.29)’와 ‘보수(4.29)’를 다른 가치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자기개발(4.21)’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서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가치로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와 적절한 보수가 주어지는지를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가치관 검사에 포함된 8개 요인 중 ‘사회봉사(1.97)’의 중요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창의성(2.22)’의 중요도 또한 낮은 편이었다. 즉, 대학생들은 사회봉사와 창의성의 가치를 다른 가치에 비해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성인들은 ‘자기개발(4.50)’을 다른 가치에 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능력발휘(4.20)’와 ‘보수(4.18)’의 가치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직업에서 자기 능력과 역량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직업가치관 검사에 포함된 8개 요인 중 ‘사회봉사(2.00)’와 ‘창의성(2.24)’의 가치는 성인들 또한 크게 중시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과 성인들은 능력발휘, 보수, 자기개발의 가치를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사회봉사와 창의성의 가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학생은 오히려 보수를 더 중요시하고 있고, 일반 성인들은 자기개발을 더 높게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 나.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 분석

대학생 및 성인의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자료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대학생)

(남=5,465, 여=5,664)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능력발휘	남	4.21	1.531	-5.916***
	여	4.38	1.507	
자율성	남	3.76	1.909	6.930***
	여	3.50	1.926	
보수	남	4.24	2.159	-2.333*
	여	4.34	2.039	
안정성	남	3.74	2.217	2.756**
	여	3.62	2.173	
사회적 인정	남	3.56	1.980	-7.823***
	여	3.85	1.867	
사회봉사	남	1.82	2.014	-7.373***
	여	2.11	2.112	
자기계발	남	4.20	1.863	-0.338
	여	4.21	1.857	
창의성	남	2.47	2.075	12.759***
	여	1.99	1.906	

\* p&lt;.05, \*\* p&lt;.01, \*\*\* p&lt;.001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직업가치관 검사에 포함된 8개 요인 중 ‘자기계발’을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더 중시하는 직업가치는 ‘자율성’, ‘안정성’, ‘창의성’이었고, 여학생들은 ‘능력발휘’, ‘보수’,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창의성이나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율성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직업에서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가치들이 성별에 따라 크게 달라짐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 시 대상자의 성별 특성을 고려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5>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성인)

(남=2,441, 여=3,364)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능력발휘	남	4.12	1.533	-3.281**
	여	4.25	1.508	
자율성	남	3.91	1.986	2.379*
	여	3.79	1.964	
보수	남	4.22	2.085	1.415
	여	4.15	2.067	
안정성	남	3.50	2.269	2.723**
	여	3.34	2.203	
사회적 인정	남	3.53	1.957	-3.899***
	여	3.73	1.859	
사회봉사	남	1.84	2.018	-4.877***
	여	2.11	2.071	
자기개발	남	4.39	1.803	-3.878***
	여	4.58	1.790	
창의성	남	2.48	2.062	7.859***
	여	2.06	1.897	

\* p<.05, \*\* p<.01, \*\*\* p<.001

성인의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업가치관검사에 포함된 8개 요인 중 ‘보수’를 제외한 나머지 가치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더 중시하는 직업가치는 ‘자율성’, ‘안정성’, ‘창의성’이었고, 여성들은 ‘능력발휘’,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한편, 창의성이나 사회봉사, 사회적 인정 등 여러 가치에 대한

남녀 간 인식 차이가 비교적 크게 나타났다. 즉, 직업에서 추구하거나 중시하는 가치들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또는 진로지도 과정에서도 남녀의 차이를 고려하여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성별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직업가치의 종류에 따라 남녀 간에 중시하는 인식의 차이가 대학생과 성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직업가치관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준비·실행하는 입장에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지 사전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생 및 성인의 집단 구분에 따라 차이의 유무나 경중이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세분화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다. 연령대에 따른 직업가치관 차이 분석(성인)

성인의 연령대에 따른 직업가치관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6>과 같다. 직업가치관 검사에 포함된 8개 요인 중 ‘보수’와 ‘사회봉사’, ‘안정성’, ‘창의성’, ‘자기계발’ 가치들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대의 높고 낮음에 따라 추구하는 가치가 다른 양상을 볼 수 있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30·40대의 성인들은 ‘보수’와 ‘안정성’을 더 크게 중요시하는 반면,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은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즉, 직업에서 중시하는 가치들이 연령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지도 과정에서 연령대에 따른 중요 가치를 잘 파악하여 맞춤형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6〉 연령대에 따른 직업가치관의 차이(성인)

(30대 이하(1)=3,845, 40대(2)=1,183, 50대(3)=563, 60대 이상(4)=21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직업가치관	능력발휘	30대 이하	4.18	1.522	1.552
		40대	4.19	1.508	
		50대	4.28	1.548	
		60대 이상	4.36	1.481	
	자율성	30대 이하	3.82	1.996	0.626
		40대	3.90	1.957	
		50대	3.86	1.887	
		60대 이상	3.77	1.904	
	보수	30대 이하	4.35	1.980	54.109*** (1,2 > 3,4)
		40대	4.16	2.092	
		50대	3.48	2.283	
		60대 이상	3.02	2.298	
	안정성	30대 이하	3.48	2.218	8.144*** (1 > 3,4) (2 > 4)
		40대	3.40	2.309	
		50대	3.17	2.188	
		60대 이상	2.85	2.060	
	사회적 인정	30대 이하	3.66	1.925	0.725
		40대	3.63	1.893	
		50대	3.60	1.827	
		60대 이상	3.49	1.773	
	사회봉사	30대 이하	1.85	1.981	43.142*** (4 > 1,2,3) (3 > 1,2)
		40대	1.99	2.054	
		50대	2.57	2.179	
		60대 이상	3.11	2.360	
	자기개발	30대 이하	4.47	1.797	3.178* (3 > 1)
		40대	4.48	1.814	
		50대	4.70	1.777	
		60대 이상	4.61	1.729	
창의성	30대 이하	2.19	1.966	7.053*** (4 > 1,2,3)	
	40대	2.25	1.973		
	50대	2.35	2.025		
	60대 이상	2.79	2.031		

\* p<.05, \*\*\* p<.001, ( )안의 내용은 사후검증 결과를 뜻함

## 2. 주요능력효능감 분석 결과

### 가. 대학생 및 성인의 주요능력효능감 양상 분석

주요능력효능감검사 결과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7>과 같다.

<표 7> 기술통계 분석 결과(주요능력효능감)

(대학생=11,129, 성인=5,805)

하위 요인	대학생		성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신체운동능력	47.13	10.545	46.26	10.235
공간지각능력	47.75	11.666	46.28	11.875
음악능력	49.02	10.667	47.76	11.079
창의력	47.50	11.672	45.99	12.389
언어능력	51.62	11.112	50.49	11.658
수리논리력	42.88	11.501	39.00	11.364
자기성찰능력	52.35	11.196	49.70	11.932
대인관계능력	51.64	11.689	48.71	12.271
자연친화력	48.92	11.330	48.21	11.212

주요능력효능감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자기성찰능력(52.35)’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대인관계능력(51.64)’과 ‘언어능력(51.62)’ 순으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진로나 직업 관련 주요 능력들 중에서 자기성찰이나 대인관계에 관한 것은 어느 정도 갖추고 있다고 대학생 스스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요능력효능감검사에 포함된 9개 요인 중 ‘수리논리력(42.88)’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신체운동능력(47.13)’과 ‘창의력(47.50)’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한편, 성인들은 ‘언어능력(50.49)’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기성찰능력(49.70)’과 ‘대인관계능력(48.71)’ 순으로 효능감이 높게 나타났다. 즉, 성인은 진로나 직업 관련 주요 능력들 중에서 언어 활용이나 자기성찰에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주요능력효능감검사에 포함된 9개 요인 중 ‘수리논리력(39.00)’에 대한 효능감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창의력(45.99)’ 등도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생과 성인들은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에 대해 공통적으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창의력과 수리논리력에 대해 특히 낮은 효능감을 보이고 있다. 즉, 대학생 및 성인이 자신감을 보이는 능력은 비교적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검사에 포함된 모든 능력에서 성인들에 비해 대학생들의 효능감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은 점을 고려하여 주요능력효능감의 양상을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 나.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 차이 분석

대학생 및 성인의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자료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주요능력효능감검사에 포함된 9개 요인 중 ‘자연친화력’을 제외한 나머지 능력들에 대한 판단 수준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더 높은 효능감을 보이고 있는 능력은 ‘신체운동능력’, ‘공간지각능력’, ‘창의력’, ‘수리논리력’, ‘자기성찰능력’이었고, 여학생들은 ‘음악능력’, ‘언어능력’, ‘대인관계능력’에서 효능감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공간지각력이나 수리논리력, 신체운동능력 등 다수의 능력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수준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즉, 진로나 직업 관련 주요 능력들에 대한 효능감 인식에서 남녀 간 격차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개발이나 진로지도의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자신감과 효능감의 차이를 고려한 프로그램 설계와 내용 구성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8〉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대학생)

(남=5,465, 여=5,66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주요능력효능감	신체운동능력	남	48.31	10.680	11.698***
		여	45.98	10.285	
	공간지각능력	남	49.29	11.535	13.845***
		여	46.26	11.599	
	음악능력	남	47.91	10.659	-10.866***
		여	50.10	10.566	
	창의력	남	48.61	11.584	9.900***
		여	46.43	11.658	
	언어능력	남	50.59	11.069	-9.693***
		여	52.62	11.063	
	수리논리력	남	44.35	11.708	13.334***
		여	41.47	11.116	
	자기성찰능력	남	52.80	11.278	4.105***
		여	51.93	11.101	
	대인관계능력	남	51.07	12.125	-5.100***
		여	52.20	11.225	
	자연친화력	남	49.13	11.393	1.854
		여	48.73	11.267	

\*\*\* p&lt;.001

한편, 성인의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주요능력효능감검사에 포함된 9개 요인에 대한 판단 수준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능력은 ‘신체운동능력’, ‘공간지각능력’, ‘창의력’, ‘수리논리력’이었고, 여성들은 ‘음악능력’, ‘언어능력’, ‘자기성찰능력’, ‘대인관계능력’, ‘자연친화력’에서 효능감을 더 높게 인식하였다. 한편, 남녀 간 효능감 인식 수준의 차이가 모든 능력에서 상당히 크게 나타났고, 특히 여성들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능력에서 남녀 차이가 더 큰 것도 특징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 진로교육의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를 염두에 둔 차별화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9〉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성인)

(남=2,441, 여=3,36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주요능력효능감	신체운동능력	남	46.98	10.369	4.615***
		여	45.73	10.105	
	공간지각능력	남	47.55	12.103	6.898***
		여	45.37	11.623	
	음악능력	남	45.95	11.106	-10.720***
		여	49.08	10.873	
	창의력	남	46.49	12.324	2.616**
		여	45.63	12.426	
	언어능력	남	48.41	11.716	-11.713***
		여	52.00	11.381	
	수리논리력	남	39.65	11.575	3.673***
		여	38.53	11.187	
	자기성찰능력	남	49.13	12.125	-3.088**
		여	50.11	11.775	
	대인관계능력	남	47.46	12.703	-6.549***
		여	49.61	11.869	
	자연친화력	남	47.69	11.364	-3.004**
		여	48.59	11.088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능력의 종류에 따라 남녀 간에 자신감을 내보이는 인식의 차이가 대학생과 성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주요능력에 대한 효능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진로교육을 준비·실행하는 과정에서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어떤 능력을 자신 있어 하고 어떤 능력을 부족하게

느끼는지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다만 능력의 종류에 따라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다르기도 하고, 대학생 집단과 성인 집단의 성별에 따라 효능감의 차이가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 대상과 능력에 맞춰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적용할 필요가 있다.

다. 연령대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 차이 분석(성인)

성인의 연령대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0>과 같다. 주요능력효능감검사에 포함된 9개 요인에 대한 효능감 판단 수준에서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하위 능력 요인들에 대해 50·60대 고연령 층이 높은 자신감을 보인 반면, 30·40대의 상대적으로 젊은 성인들은 효능감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연령대에 따라 능력에 대한 효능감 인식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주요능력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지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진로개발 지원이나 진로교육에서 대상 연령대에 따라 다른 방법과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0> 연령대에 따른 주요능력효능감의 차이(성인)

(30대 이하(1)=3,845, 40대(2)=1,183, 50대(3)=563, 60대 이상(4)=21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주요능력효능감	신체운동능력	30대 이하	45.78	10.328	18.639*** (3,4 > 1,2)
		40대	46.16	10.095	
		50대	48.54	9.687	
		60대 이상	49.29	9.423	
	공간지각능력	30대 이하	45.71	11.818	11.888*** (3 > 1,2) (4 > 1)
		40대	46.75	12.052	
		50대	48.50	11.731	
		60대 이상	48.13	11.385	
	음악능력	30대 이하	47.43	10.973	5.509** (3 > 1)
		40대	48.09	11.148	
		50대	49.37	11.315	
		60대 이상	47.79	11.601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창의력	30대 이하	44.91	12.352	42.284*** (3,4 > 1,2) (2 > 1)
		40대	46.71	12.355	
		50대	49.91	11.741	
		60대 이상	50.99	11.356	
	언어능력	30대 이하	49.54	11.635	59.065*** (3,4 > 1,2)
		40대	50.28	11.521	
		50대	55.60	10.359	
		60대 이상	55.40	11.433	
	수리논리력	30대 이하	37.59	10.969	88.906*** (3,4 > 1,2) (2 > 1)
		40대	39.94	11.553	
		50대	44.17	11.241	
		60대 이상	45.55	10.902	
	자기성찰능력	30대 이하	48.57	11.931	72.566*** (3,4 > 1,2)
		40대	49.64	11.651	
		50대	55.09	10.452	
		60대 이상	56.06	11.336	
	대인관계능력	30대 이하	48.08	12.349	49.755*** (3,4 > 1,2)
		40대	47.53	12.034	
		50대	53.45	11.010	
		60대 이상	54.06	11.167	
	자연친화력	30대 이하	47.94	11.242	7.087*** (4 > 1,2) (3 > 1)
		40대	48.00	11.291	
		50대	49.46	10.809	
		60대 이상	50.82	10.791	

\*\* p<.01, \*\*\* p<.001, ( )안의 내용은 사후검증 결과를 뜻함

### 3. 진로개발 분석 결과

#### 가.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개발 양상 분석

진로개발준비도검사 결과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 결과는 <표 11>과 같다.

〈표 11〉 기술통계 분석 결과(진로개발준비도)

(대학생=11,129, 성인=5,805)

하위 요인	대학생		성인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자기이해	46.16	13.567	42.88	14.909
전공직업지식	46.95	13.439	43.73	14.270
진로결정확신도	42.63	13.997	38.20	13.315
의사결정자신감	48.50	10.963	46.13	11.590
관계활용자신감	50.65	12.411	46.71	13.571
구직준비도	47.57	12.163	48.00	13.288

진로개발준비도 분석 결과, 대학생들은 ‘관계활용자신감(50.65)’이 진로개발 관련 다른 요인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의사결정자신감(48.50)’, ‘구직준비도(47.57)’의 순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진로목표를 달성하거나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 가운데,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과 의사결정의 방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 취업준비에 요구되는 기술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진로개발준비도검사에 포함된 6개 요인 중 ‘진로결정확신도(42.63)’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 대학생들이 진로개발 방향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자기이해(46.16)’와 ‘전공직업지식(46.95)’도 대학생들의 진로개발 요인 중 낮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들은 ‘구직준비도(48.00)’가 진로개발 관련 다른 요인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관계활용자신감(46.71)’과 ‘의사결정자신감(46.13)’의 순으로 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필요한 요인들 가운데, 직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데 필요한 요소를 파악하여 기술을 갖추는 것과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는 것, 의사결정 방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 성인들이 좀 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 진로개발준비도 검사에 포함된 6개 요인 중 ‘진로결정확신도(38.20)’가 상당히 낮게 나타나, 진로개발 방향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외 ‘자기이해(42.88)’와 ‘전공 직업지식(43.73)’도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과 성인들의 진로개발 양상을 종합해보면, 관계활용자신감이나 의사결정자신감, 구직준비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다고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진로결정확신도의 경우 공통적으로 낮게 나타나, 많은 대학생과 성인들이 자기 진로에 대한 방향성과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개발에서 자기이해나 진로결정과 관련한 준비와 문제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므로, 취약한 해당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생에 비해 성인들의 진로개발이 구직준비도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진로교육 및 지원 강화가 더 필요함을 시사한다.

#### 나.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 차이 분석

대학생 및 성인의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사 자료에 대한 평균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2>와 같다. 진로개발준비도검사에 포함된 6개 요인 중 ‘자기이해’와 ‘구직준비도’를 제외한 다른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들이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로개발 요인은 ‘진로결정확신도’, ‘의사결정자신감’, ‘관계활용자신감’이었고, 여학생들은 ‘전공직업지식’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의사결정자신감이나 전공직업지식과 같은 진로개발 요인에서 남녀 간 인식 수준의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즉, 진로를 개발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인들 가운데 의사결정의 방법을 알고 실행하는 것과 원하는 직업이나 현재 전공과 관련된 지식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성별에 따른 이해 및 실행 정도가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직업 준비와 이해를 위한 교육, 진로개발 및 지원 등의 과정에서 남녀 간 차이와 각각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내용이나 방법, 진로개발 전략의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2〉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대학생)

(남=5,465, 여=5,66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개발준비도	자기이해	남	46.17	13.965	0.051
		여	46.15	13.172	
	전공직업지식	남	46.25	14.051	-5.390***
		여	47.62	12.785	
	진로결정확신도	남	43.02	14.055	2.838**
		여	42.26	13.931	
	의사결정자신감	남	49.41	11.085	8.675***
		여	47.61	10.772	
	관계활용자신감	남	51.01	12.744	2.989**
		여	50.31	12.071	
	구직준비도	남	47.75	12.416	1.569
		여	47.39	11.912	

\* p&lt;.05, \*\* p&lt;.01, \*\*\* p&lt;.001

성인의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13>과 같다. 진로개발준비도검사에 포함된 6개 요인에 대한 인식 수준에서 남녀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이 더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진로개발 요인은 ‘의사결정자신감’, ‘관계활용자신감’이었고, 여성들은 ‘자기이해’, ‘전공직업지식’, ‘진로결정확신도’, ‘구직준비도’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여성들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진로개발 요인들의 남녀 간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났다. 즉, 진로개발과 관련하여 갖추어야 할 특성들에 대한 이해 및 실행 정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진로 및 직업 준비, 진로개발과 지원을 위한 성인 대상 진로교육 과정에서 남녀 특성을 고려한 교육 방향 설정과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3〉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성인)

(남=2,441, 여=3,36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t
진로개발준비도	자기이해	남	41.53	15.061	-5.892***
		여	43.86	14.722	
	전공직업지식	남	41.65	14.850	-9.435***
		여	45.25	13.638	
	진로결정확신도	남	37.52	13.234	-3.328**
		여	38.70	13.354	
	의사결정자신감	남	46.55	11.528	2.368*
		여	45.82	11.627	
	관계활용자신감	남	47.16	13.806	2.145*
		여	46.38	13.391	
	구직준비도	남	46.87	13.369	-5.538***
		여	48.82	13.171	

\* p<.05, \*\* p<.01, \*\*\* p<.001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면, 진로개발 요소별로 남녀 간에 이해 및 준비 수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대학생과 성인 모든 집단에서 나타났다. 즉, 성별에 따라 진로개발에 대한 이해도나 자신감이 다르기 때문에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특성을 고려하여 진로개발 방향 및 선택적·집중적 진로개발 영역을 사전에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진로결정, 진로준비, 진로설계 및 실행의 전 과정에서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진로지원을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성인의 경우 성별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 차이가 큰 편이므로, 이러한 차이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성인 남녀가 필요로 하는 진로지원과 진로교육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준비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다. 연령대에 따른 진로개발 차이 분석(성인)

성인의 연령대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 평균 차이 분석 결과는 <표 14>와 같다. 진로개발준비도검사에 포함된 6개 요인에 대한 이해 및 준비 수준에서 연령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하위 요인들에 대해 50·60대의 고연령 층이 30·40대에 비해 매우 높은 준비도와 실행도를 보이고 있고, ‘관계활용자신감’을 제외한 나머지 특성에서는 40대와 30대 이하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즉, 연령대에 따라 진로개발과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준비 및 실행 정도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인들을 대상으로 직업준비 및 진로개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실행할 때, 연령대별 특성을 반드시 고려하여 차별화한 전략과 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4〉 연령대에 따른 진로개발준비도의 차이(성인)

(30대 이하(1)=3,845, 40대(2)=1,183, 50대(3)=563, 60대 이상(4)=214)

검사	하위 요인	성별	평균	표준편차	F (Scheffe)
진로개발준비도	자기이해	30대 이하	40.54	14.619	159.347*** (4,3 > 1,2) (2 > 1)
		40대	44.05	14.402	
		50대	52.23	12.807	
		60대 이상	53.98	12.454	
	전공직업지식	30대 이하	41.50	13.887	153.894*** (4,3 > 1,2) (2 > 1)
		40대	44.96	13.950	
		50대	52.67	12.464	
		60대 이상	53.67	13.031	
	진로결정확신도	30대 이하	35.78	12.439	222.716*** (4,3 > 1,2) (2 > 1)
		40대	39.33	13.261	
		50대	48.05	12.495	
		60대 이상	49.57	12.320	
	의사결정자신감	30대 이하	44.69	11.289	91.873*** (4,3 > 1,2) (2 > 1)
		40대	46.98	11.518	
		50대	51.53	11.158	
		60대 이상	53.03	11.398	
	관계활용자신감	30대 이하	46.10	13.593	31.745*** (4,3 > 1,2)
		40대	45.86	13.753	
		50대	50.66	12.344	
		60대 이상	52.08	12.301	
구직준비도	30대 이하	45.62	12.904	180.559*** (4,3 > 1,2) (2 > 1)	
	40대	49.90	12.618		
	50대	56.81	11.535		
	60대 이상	57.12	12.692		

\*\*\* p<.001, ( )안의 내용은 사후검증 결과를 뜻함

#### 4.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결과

##### 가. 대학생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대학생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5〉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의 상관(대학생)

	능력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자기이해	.051*	-.015	-.190*	-.124*	-.013	.101*	.071*	.155*
전공직업 지식	.046*	-.060*	-.152*	-.070*	.023*	.110*	.049*	.076*
진로결정 확신도	.017	-.077*	-.188*	-.025*	-.009	.150*	.072*	.073*
의사결정 자신감	.086*	-.002	-.138*	-.146*	-.049*	.049*	.114*	.132*
관계활용 자신감	.040*	-.053*	-.073*	-.067*	.019*	.057*	.049*	.047*
구직 준비도	.076*	-.055*	-.120*	-.132*	.040*	.047*	.044*	.137*

\* p<.05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15>와 같다.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의 하위 요인들은 대부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상관의 정도가 그다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자기이해’의 경우 ‘보수(-.190)’와는 음의 상관을 보인 반면, ‘창의성(.155)’과는 높은 양의 상관을 보였다. 즉, 요인별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관계를 보이고 있다. 대체적으로 ‘자율성’, ‘보수’,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대학생들은 진로개발과 관련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경향이 있고, ‘능력발휘’, ‘사회봉사’, ‘자기개발’, ‘창의성’ 등을 추구하는 대학생들은 진로개발준비도가 높은 편이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 교육 및 진로개발 지원 과정에서 대학생들이 중시하는 직업가치에 따라 다른 내용과 방법의 활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표 16〉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의 상관(대학생)

	신체운동 능력	공간지각 능력	음악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수리 논리력	자기성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연 친화력
자기이해	.275*	.257*	.248*	.445*	.427*	.184*	.521*	.423*	.217*
전공직업 지식	.233*	.238*	.227*	.381*	.389*	.172*	.454*	.384*	.226*
진로결정 확신도	.236*	.224*	.163*	.333*	.296*	.174*	.410*	.348*	.208*
의사결정 자신감	.241*	.210*	.125*	.327*	.315*	.211*	.459*	.378*	.102*
관계활용 자신감	.269*	.202*	.200*	.318*	.361*	.175*	.452*	.492*	.172*
구직 준비도	.311*	.260*	.267*	.481*	.509*	.236*	.500*	.490*	.202*

\* p<.05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16>과 같다.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들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성찰능력’과 ‘대인관계능력’, ‘창의력’, ‘언어능력’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로개발 준비나 행동에 대한 이해나 실행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들의 주요 능력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맞춤형 진로교육이나 진로지원을 실시한다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진로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 나.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요인들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진로 심리검사 결과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7〉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의 상관(성인)

	능력발휘	자율성	보수	안정성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
자기이해	.085*	-.030*	-.192*	-.185*	.017	.111*	.054*	.194*
전공직업 지식	.087*	-.062*	-.157*	-.148*	.061*	.085*	.049*	.135*
진로결정 확신도	.094*	-.084*	-.232*	-.136*	.037*	.153*	.080*	.142*
의사결정 자신감	.104*	.015	-.148*	-.187*	-.052*	.060*	.115*	.155*
관계활용 자신감	.072*	-.051*	-.090*	-.118*	.024	.073*	.054*	.076*
구직 준비도	.112*	-.064*	-.138*	-.175*	.060*	.056*	.066*	.144*

\* p&lt;.05

성인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17>과 같다.

진로개발준비도와 직업가치관의 하위 요인들은 대부분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요인별 특성에 따라 정적인 관계와 부적인 관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대학생들과 유사한 양상으로 ‘자율성’, ‘보수’, ‘안정성’ 등을 중시하는 성인들은 진로개발과 관련한 인식이 높지 않은 경향이고, ‘능력발휘’, ‘사회봉사’, ‘자기계발’, ‘창의성’ 등을 추구하는 성인들은 진로개발준비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다만 ‘사회적 인정’ 가치에 대한 인식과 진로개발에 대한 이해 및 실행은 상대적으로 관련성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지원 과정에서 성인들이 중시하는 직업가치에 따라 다른 방향의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표 18〉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의 상관(성인)

	신체운동 능력	공간지각 능력	음악능력	창의력	언어능력	수리 논리력	자기성찰 능력	대인관계 능력	자연 친화력
자기이해	.257*	.262*	.267*	.467*	.489*	.279*	.572*	.414*	.210*
전공직업 지식	.249*	.279*	.255*	.437*	.449*	.303*	.511*	.398*	.227*
진로결정 확신도	.223*	.210*	.180*	.381*	.385*	.282*	.485*	.366*	.166*
의사결정 자신감	.231*	.202*	.122*	.329*	.332*	.239*	.477*	.354*	.108*
관계활용 자신감	.273*	.214*	.216*	.324*	.366*	.251*	.465*	.479*	.154*
구직 준비도	.301*	.283*	.271*	.488*	.530*	.351*	.530*	.480*	.195*

\* p<.05

성인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에 대한 상관분석 결과는 <표 18>과 같다.

진로개발준비도와 주요능력효능감의 모든 하위 요인들은 유의미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성찰능력’과 ‘언어능력’, ‘창의력’, ‘대인관계능력’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진로개발 준비나 행동에 대한 이해나 실행 정도가 높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성인 대상 진로교육과 진로지원을 실행할 때에도 주요 능력 수준을 면밀하게 파악한다면 맞춤형의 진로개발이 가능할 것임을 시사한다.

### III. 정책 제언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학령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특성이나 진로개발 정도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초·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과제를 발굴해왔다. 반면, 대학생이나 성인의 진로개발이나 진로지원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 수행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편이었다. 따라서 대규모의 연구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관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주제나 당면한 사업과제를 발굴하는데 주요한 시사점이나 함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양상을 분석하고 각 요인들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에 기반하여 도출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고, 향후 연구나 사업에 필요한 당면 과제를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 제언1)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을 사전에 고려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정책의 수립과 실행이 필요하다.

학령기 청소년의 진로교육과 진로지도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커져 왔고, 청소년의 직업 가치관이나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등의 진로 특성을 파악하여 그에 부합하는 진로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행해왔다. 하지만 대학생을 포함한 성인들의 진로교육이나 진로개발 관련 정책은 그들의 진로 특성과 결합된 뚜렷한 방향성을 보이지 못했고, 성인들의 자율적인 이해와 선택에 맡기거나 특정한 직업세계나 취업 장면에서 요구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주요능력효능감과 같은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준비도 관련 심리검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의 다양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예컨대, 직업가치관과 관련하여 대학생과 성인은 공통적으로 ‘능력발휘’와 ‘보수’, ‘자기계발’의 가치를 중시하고 있지만, 대학생들은 ‘능력발휘’와 ‘보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반면, 성인들은 ‘자기계발’을 좀 더 강조하는 등 서로 중요시하는 양상이 달랐다. 주요능력효능감의 경우에도 대학생들은 스스로 ‘자기성찰능력’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지만, 성인들은 ‘언어능력’에 더 효능감을 느끼고 있었다. 또한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효능감 수준이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성인들은 다소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진로개발준비도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은 ‘관계활용자신감’과 ‘의사결정자신감’이 높게 나타난 반면, 성인들은 ‘구직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나 성인의 진로를 지도하고 개발하는 장면에서 연구자나 교육 관계자들이 가질 수 있는 통념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다. 따라서 실제 진로교육이나 진로개발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때, 정책 수혜 대상이 되는 대학생이나 성인의 현재 진로 특성이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부분을 필요로 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진로교육이나 진로지도를 통해 대학생과 성인의 직업선택이나 취업을 실질적으로 도울 뿐만 아니라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므로,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하여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직업가치관 및 주요능력효능감과 진로개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진로 특성을 드러내는 대부분의 요인들과 진로개발 준비 및 실행과 관련된 요인들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과 성인이 자기 능력에 대해 높은 효능감을 가지는 것과 스스로를 이해하여 진로를 결정하거나 준비하는 것의 관련성은 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내용을 구성할 때, 대상이 되는 대학생이나 성인의 특성이나 능력을 강조하거나 진로개발 및 진로준비 수준의 목표점을 명료하게 제시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예컨대, 대학생과 성인은 공통적으로 ‘자기성찰능력’이 높으면 진로개발준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를 고려하여 자기성찰능력 강화와 진로준비를 연계한 정책을 수립·시행한다면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설정과 진로개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교육과 진로개발 요구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수혜 대상인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 특성을 정책 수립 이전에 면밀하게 파악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수집된 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하여 대학생과 성인들이 필요로 하거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들이 함양되도록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해야 한다.

## 제언2) 대학생 및 성인 대상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설계·실행 시, 대상자의 배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학령기 청소년의 진로교육이나 진로지원은 학교급별 및 학년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경우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진로발달 단계의 구분이 비교적 용이하고 학교교육과정 등에 맞추어 진로지도의 방향이나 목표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설계와 실행 방향성이 분명하다. 하지만 대학생 및 성인의 경우에는 진로경로가 다양하고 진로준비의 범위도 넓기 때문에, 진로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의 설계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대규모의 자료를 분석하여 대학생과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양상을 확인한 결과, 성별이나 연령대와 같은 진로교육 대상의 배경 특성에 따라 진로와 관련된 특성 요인들이 다른 경향성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예컨대, 대학생의 경우 남녀 간 중시하는 직업가치에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은 ‘자율성’, ‘안정성’, ‘창의성’ 등을 중요하게 여긴 반면, 여학생들은 ‘능력발휘’, ‘보수’, ‘사회적 인정’, ‘사회봉사’ 등을 중시하였고, 그 차이 또한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스스로 높다고 판단하는 능력의 종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진로개발과 관련된 요인에서도 ‘의사결정자신감’은 남학생이, ‘전공직업지식’은 여학생이 이해와 준비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성인의 경우에도 진로 특성 및 진로개발준비도와 관련하여 성별에 따른 격차가 나타났는데, 대학생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요인들도 있었지만 다르게 나타나는 요인들도 있었다. 예컨대, 대학생들은 ‘보수’에 대한 인식에서 남녀 간에 차이가 컸지만, 성인들은 남녀 모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로 확인되었다. 그 외 성인들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따라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특성들에 대한 인식이나 판단이 상이한 양상을 보였는데, 대체로 30·40대와 50·60대간 차이가 큰 편이었고, 특히 진로개발과 관련한 요인들에서는 고연령 층으로 올라갈수록 준비가 되어있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진로개발, 직업선택의 범위 및 폭이 넓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의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하면, 교육 프로그램과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가 떨어지고 적절한 진로개발이나 진로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단일한 방향이나 단조로운 내용으로 구성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경우, 성별에 따라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내용이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

적으로만 프로그램을 활용하거나 온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결과들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단순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적용한다면 더욱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연령층에 따라 중시하는 진로 특성이나 가치가 상이하기 때문에 특정 연령대가 선호하는 프로그램은 다른 연령대가 지루해 하거나 수용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대학생 및 성인의 성별이나 연령 등 다양한 유형의 배경 특성에 따라 필요로 하거나 선호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의 방향과 내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프로그램의 설계 및 실행 과정에서 대상을 특정하여 선호와 요구를 살피고 이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효과와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30·40대의 진로개발준비도는 50·60대에 비해 상당히 낮은 편이므로 저연령층 성인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로개발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30·40대의 ‘진로 결정확신도’가 매우 낮으므로 우선적으로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로지원이 필요하다. 반면, 50·60대의 경우에는 진로개발준비도가 전반적으로 높지만 그 중에서 ‘관계활용자신감’이 다소 낮은 편이므로, 진로결정과 취업 장면에 사회적 관계를 활용하거나 발굴하는 방법에 중점을 둔 맞춤형 프로그램을 적용한다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경로와 진로선택 및 준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은 그들의 다양한 배경 특성을 고려하여 특화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의 목표와 상황에 따라 필요로 하거나 요구되는 특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프로그램의 주요 대상자의 배경 특성(성별, 연령, 학력, 전공 등)에 따라 중시하거나 선호하는 특성이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셋째,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의 목표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법과 내용을 선정하여 맞춤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용해야 한다.

### **제언3) 대학생 및 성인 대상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해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진로교육은 초·중등학교의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온 반면, 대학생이나 성인에 대한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은 정책이나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기 보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이해와 준비, 실행에 맡기는 경향이 강했다.

다만, 최근 들어 대학생의 진로설정 및 진로개발의 어려움, 직업선택이나 취업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계속해서 부각됨에 따라 대학생에 대한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전히 다양한 정책의 개발·적용이 필요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지원 또한 실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요구들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고 일괄적인 성격의 프로그램이 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성인 진로개발을 프로그램을 다양화·차별화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과 성인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대나 직업세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대학생 및 성인의 특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성인들의 진로 특성을 타당하고 신뢰롭게 확인할 수 있는 표준화된 검사가 많지 않은 편이고, 커리어넷이나 워크넷 등의 국가적 시스템을 통해 제공·실시하는 검사를 활용한 분석이나 연구도 활성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 연구자나 정책실행자가 조사와 연구를 수행해왔으나, 대규모의 양질의 자료를 활용하여 대학생과 성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의 내용과 방향을 탐색하기 위한 연구 수행은 미흡한 편이다. 이 연구에서 1만 명 이상의 대규모 심리검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을 밝히고자 하였으나, 분석에 투입한 진로 심리검사의 종류와 문항의 수 및 범위의 제한으로 연구 결과의 해석 및 적용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와 결합한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좀 더 다양한 측면에서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역량, 진로개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 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이나 성인의 진로 특성과 요구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화·차별화된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의 정책 수립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새로운 검사의 개발뿐만 아니라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검사나 조사의 현대화, 다양한 유형의 양적·질적 자료 수집, 수집된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연구와 평가 시행, 분석된 결과를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 예컨대, 기존에 직업흥미도, 진로성숙도 및 진로개발준비도 등 여러 종류의 검사가 있었지만, 차별적인 진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적응성의 개인차를 확인할 수 있는 진로적응성 측정도구나 특정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종합적인 진로 행동이나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진로역량 측정도구 등 새로운 진로 특성 관련 측정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다(장계영·김봉환, 2011; Akkermans, et, al., 2013). 이와 같은 여러 종류의 검사와 측정도구를 개발 및 표준화하여, 진로 특성에 대한 측정과 판단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폭넓게 서비스하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다각적인 분석과 의사결정을 실시한다면, 다양화·차별화된 진로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고 참여자들의 만족도와 성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대학생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의 다양화 및 차별화의 필요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 관련 심리검사 및 각종 조사를 다양화 및 현대화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양질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연구와 평가를 통해 산출된 결과를 정책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반영하여 다양하고 차별화된 진로개발 및 진로지원이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 활용해야 한다.

## IV. 기대 효과

이 연구는 대규모의 표준화된 검사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개발·적용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3년간 총 3종의 진로 심리검사를 실시한 1만명 이상의 대학생 및 성인의 검사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고, 문헌 분석 및 전문가협의회 결과를 종합하여 효과적이고 차별화된 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접근 방향을 제안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과 성인의 직업가치관, 주요능력효능감, 진로개발준비도 등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양상이 유사하면서도 우선순위나 중요도에 차이가 있고, 성별과 연령 등 배경 특성에 따라 인식과 판단이 상이하며, 개인의 가치나 인식 수준에 따라 진로개발에 대한 준비와 실행 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첫째,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을 고려한 진로교육 및 진로개발 정책 수립·실행, 둘째, 대학생 및 성인의 배경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 개발·적용, 셋째, 대학생 및 성인 대상 진로지원 정책과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차별화를 위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수집·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개발 필요성과 진로지원 요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 연구의 정책 제언을 수용하여 실천할 경우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규모의 표준화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양상을 분석하고 정책을 수립·실행하면, 정책 수혜자인 대학생과 성인들이 정책의 효과를 더욱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 및 성인의 배경 특성에 따라 진로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여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적용하면, 개인이나 집단 특성에 부합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다각적인 측면에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측정도구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하여 분석 및 연구 결과를 진로교육 현장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진로교육 및 진로지원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풍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희순(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실천연구』, 9(3), 83~104.
- 김경옥(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1(2), 501~519.
-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과학회지』, 9(4), 5~14.
- 김중운·박성실(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26(3), 123~141.
- 김지영·이민영(2018). 「대학생의 일 경험에 따른 진로발달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31(3), 135~157.
- 서희정·윤명희(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연구』, 33(3), 105~125.
- 양명희·박명지·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교육연구』, 29(2), 137~156.
-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4), 31~58.
- 이종원·최은수(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Andragogy Today』, 18(1), 33~54.
- 이현림·천미숙(2003). 「성인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16(2), 414~444.
- 임언·박보경·현진실(2012). 「청소년의 직업가치관 변화」. 『진로교육연구』, 25(3), 19~37.
- 임언·이지연·윤형한(2004). 『이공계 대학생의 전공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II)』.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정윤경·상경아(2001). 『직업가치관검사 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윤형한(2005).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진로교육연구』, 18(1), 116-132.
- 장계영·김봉환(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2(2), 539~558.
- 정영해·강희순·김정숙(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연구』, 22, 71~88.
- 정윤경(2019). 「진로지원 시스템 현황과 개편 과제」. 『The HRD Review 22권 2호』, 68~91.

- 정철영·이종범·이성식(2002). 「우리나라 주요 표준화 진로 검사도구의 실태 분석」. 『진로 교육연구』, 15(2), 193~212.
- 조성연·홍지영(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상담학연구』, 11(3), 1099~1115.
- Akkermans, J., Brenninkmeijer, V., Huibers, M., & Blonk, R. W. B.(2013). “Competencies for the contemporary career: Development and preliminary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questionnaire”.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40(3), 245~267.
- Eby, L. T., Butts, M., & Lockwood, A.(2003). “Predictors of success in the era of the boundaryless career”.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4, 689~708.
- Francis-Smythe, J., Haase, S., Thomas, E., & Steele, C.(2012).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areer competencies indicator”. *Journal of Career Assessment*, 21(2), 227~248.
- Super, D. E., & Knasel, E. G.(1981). “Career development in adulthood: Some theoretical problems and a possible solution”.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9(2), 194~201.

※ 커리어넷 심리검사 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career.go.kr/cnet/front/examen/examenMain.do>



## Abstract

# An Analysis on Relationship of Career Characteristics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understand career characteristics and career development of college students and adults and to analyze relationship of them. For this, large-scale psychological test data conducted by 11,129 college students and 5,805 adults were analyzed statistically. As a result, career characteristics were clearly represented high and low by factors, and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gender and age. In addition, most of factors of career characteristics and career development were significantly related each other. Considering these results, 3 suggestions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First, it is necessary to examine career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and adults thoroughly before establishing career education policy. Second, it is important to develop and provide customized programs for differentiated career support to recipient. Third, it is needed to expand and supply large-scale psychological tests and give more information for developing career of college students and adults.

- Keywords: Career Characteristic, Career Development, College Student, Adult, Career Education, Career Support

## [부록 1]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련 선행연구

연구자(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강희순(2010)	대학생의 성별, 학년, 진로의식이 진로개발 준비도 및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성별에 따라 자기이해, 전공직업, 진로결정, 구직 기술에 차이가 있으며, 학년에 따라 진로개발준비도에 차이가 있음.</li> <li>- 대학생의 성별, 학년에 따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있음.</li> <li>-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성별, 학년, 진로의식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진로의식검사 32문항, 진로개발준비도검사 35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검사 25문항, 대학생 264명 대상)</li> </ul>
김경옥(2009)	자기효능감과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족이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진로성취목표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과 정적상관을 보임. 진로성취목표 중 숙달목표와 정적상관을, 수행회피목표와는 부적상관을 보임.</li> <li>- 진로준비행동에 숙달목표, 수행접근목표, 수행회피목표가 영향을 미침. 진로결정수준에 숙달목표와 수행회피목표가 설명력을 보임.</li> <li>-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수준 간 관계를 진로성취목표가 완전매개함. (자기효능감척도 24문항, 진로성취목표척도 18문항, 진로결정검사 19문항, 대학생 206명 대상)</li> </ul>
김정숙·서리나·탁정미(2006)	여대생의 사회적 지지 및 자기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대생의 진로결정 수준이 평균 2.76점(4점 만점)으로 중간 점수보다는 높은 수준임.</li> <li>- 학년별 분석 결과, 1학년이 가장 낮았고 2학년이 두드러지게 높음. 계열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li> <li>- 자존감 지지 및 평가적 지지가 진로결정 수준에, 일반적 효능감이 진로결정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침. (대인관계지지평가척도 48문항, 자기효능감척도 23문항, 진로결정수준검사 19문항, 여대생 380명 대상)</li> </ul>
김종운·박성실 (2013)	전문대학생의 진로장벽이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은 진로준비행동에 부적인 직접효과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직접효과를 미침.</li> <li>-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있음. (진로탐색장벽검사 45문항, 진로준비행동검사 13문항, 진로자기효능감척도 25문항, 전문대학생 230명 대상)</li> </ul>

연구자(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김지영·이민영 (2018)	대학생의 일 경험에 따른 진로발달이 직업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 경험 유무에 따라 진로발달 요인 중 진로계획성,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진로독립성에 차이가 나타남.</li> <li>- 진로관심, 진로계획성, 진로에 대한 자기효능감, 진로독립성은 직업가치관(외재적 가치, 내재적 가치)에 영향을 미침. (청년패널조사 10차년도 자료, 대학생 1,168명 응답 분석)</li> </ul>
서희정·윤명희 (2014)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의 표준화 연구: 4년제 대학생을 대상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용 진로준비행동검사를 3개 영역으로 개발. (학습영역 11문항, 상담 및 정보수집영역 12문항, 취업실전영역 7문항)</li> <li>- 신뢰도, 구인타당도, 변별타당도, 공인타당도 확인. (예비조사 609명, 본조사 1,244명)</li> <li>- 대학생의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빈약했으며, 특히 취업실전영역의 빈도가 낮음. 학생들이 인식한 도움 정도는 취업실전영역이 가장 높게 나타남.</li> <li>- 진로준비행동 수행 정도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높은 편임.</li> </ul>
양명희·박명지·김희정(2010)	대학생의 전공-흥미 일치도,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공-흥미 일치도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li> <li>- 업흥미 수준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가 높으며 유의하게 예언함.</li> <li>- 탐구형, 사회형, 예술형, 진취형 유형에서 직업흥미 수준이 전공만족도와 진로성숙도와 높은 상관을 보임. (직업선호도검사 192문항, 진로성숙도검사 105문항, 전공만족도검사 6문항, 대학생 254명 대상)</li> </ul>
오은주(2014)	대학생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및 진로준비행동과 부적상관을 보임.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상관을 보임.</li> <li>- 진로장벽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로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침. (진로결정장애검사 22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 25문항, 진로준비행동척도 18문항, 대학생 236명 대상)</li> </ul>
이종원·최은수 (2015)	대학생의 셀프리더십, 사회적지지, 진로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도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셀프리더십은 진로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직접효과가 있음. 진로성숙도에는 직접효과가 없으나, 진로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통한 간접효과는 있음.</li> <li>- 사회적지지는 진로성숙도에 직접효과가 있음.</li> <li>- 진로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도에 직접효과가 있음. (셀프리더십 35문항, 사회적지지 23문항, 진로동기 26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25문항, 진로성숙도 24문항, 대학생 1,176명 대상 설문조사)</li> </ul>

연구자(연도)	연구제목	주요 연구내용
이현림·천미숙 (2003)	성인여성의 직업가치관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성의 학력이나 가정의 월수입, 연령, 취업유무에 따라 직업가치관에 유의한 차이는 없음.</li> <li>- 학력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차이가 있음.</li> <li>- 취업 유무에 따라 진로의식성숙 수준에 차이가 있음. (직업가치관검사 45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 25문항, 진로의식성숙검사 75문항, 성인여성 585명 대상)</li> </ul>
임언·윤형한 (2005)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 검사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용 진로개발준비도검사를 6개 요인으로 개발 (자기이해 5문항, 전공 및 직업지식 6문항, 진로결정도 5문항, 의사결정 효능감 6문항, 관계활용 효능감 6문항, 구직기술 7문항)</li> <li>- 신뢰도, 구인타당도, 공인타당도 확인. (예비검사 356명, 본검사 1,926명)</li> <li>- 진로결정을 한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 진로개발준비도 차이가 있음.</li> <li>- 학년이 높아질수록 진로개발준비도가 높아지는 경향 있음.</li> </ul>
장계영·김봉환 (2011)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 진로적응성 척도를 8개 요인으로 개발. (대인관계 5문항, 목표의식 8문항, 창의성 7문항, 책임감 8문항, 직무능력 4문항, 긍정적태도 4문항, 주도성 5문항, 개방성 4문항)</li> <li>- 신뢰도, 구인타당도 확인. (예비조사 530명, 본조사 622명)</li> </ul>
정영해·강희순 ·김정숙(2012)	대학생의 취업준비 여부, 직업가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개발 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생의 진로개발준비도는 4학년이 1,2학년에 비해 높음.</li> <li>-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내재적 직업가치, 외재적 직업가치, 취업준비 여부가 진로개발준비도에 영향을 미침.</li> <li>- 내재적 직업가치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또한 취업준비를 하는 학생이 진로개발준비도가 높음. (취업준비여부 1문항, 직업가치척도 10문항,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척도 25문항, 진로개발준비도검사 35문항, 대학생 402명 대상)</li> </ul>
조성연·홍지연 (2010)	성인 학습자의 인구학적 변인,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적응성의 관계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인 학습자의 진로적응성은 성별과 월평균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음.</li> <li>-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중 진로탐색요인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li> <li>-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침. (진로적응성척도 31문항, 진로결정자기효능감척도 10문항, 성인 학습자 615명 대상)</li> </ul>

[부록 2] 진로 심리검사 하위요인

검사명	문항 수	하위 요인명	정의
직업가치관 검사	28문항	능력 발휘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성취감을 갖는 것
		자율성	일하는 방식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것
		보수	직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
		안정성	한 직장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것
		사회적 인정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사회봉사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
		자기개발	직업을 통해 더 발전하고 배울 수 있는 것
		창의성	스스로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것
주요능력 효능감검사	49문항	신체운동능력	효율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동작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공간지각능력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며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음악능력	노래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며 감상할 수 있는 능력
		창의력	새롭고 독특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언어능력	말과 글로써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며 타인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수리논리력	수리적으로 사고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자기성찰능력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알며 조절할 수 있는 능력
		대인관계능력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진로개발 준비도검사	35문항	자기이해	자신의 흥미, 적성, 가치관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전공직업지식	원하는 직업, 현재 전공에 대해 알고 있는 정도
		진로결정확신도	진로결정 여부와 진로결정에 대한 확신 및 만족의 정도
		의사결정자신감	의사결정 방법을 아는 정도, 의사결정에 대한 자신감 정도
		관계활용자신감	진로 및 취업에서 사회적 관계 활용에 대한 자신감 정도
		구직준비도	면접, 이력서작성 등 구직준비에 대한 자신감 정도

※ 커리어넷 심리검사 서비스 홈페이지 및 임언 외(2012) 등 관련 연구 참조

□ 저자 약력

- 이재열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대학생 및 성인의 진로 특성과 진로개발 관계 분석

발행일 2019년 12월 16일  
인쇄일 2019년 12월 18일  
발행인 나 영 선  
발행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 <http://www.krivet.re.kr>  
전화 : (044)415-5000, 5100  
팩스 : (044)415-5200

등록일자 1998년 6월 11일  
등록번호 제16-1681호  
I S B N 979-11-339-7415-3-93370  
인쇄처 (주)아르빛 (044)863-0933

[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

값 4,000원

93370



9 791133 974153

ISBN 979-11-339-7415-3